



예거 르쿨트르,

듀오미터 크로노그래프 문 출시

- 매우 정교한 크로노그래프와 문페이스 디스플레이를 결합한 새로운 칼리버 391
- 뛰어난 정확성을 보장하는 특허받은 듀오미터 메커니즘
- 고유한 스타일로 모던한 우아함을 선사하는 새로운 케이스와 다이얼

2007 년, 예거 르쿨트르는 정확성을 대표하는 컴플리케이션인 크로노그래프 형태의 획기적인 듀오미터 메커니즘을 출시했습니다. 2024 년 그랑 메종은 완전히 새로운 시계에 듀오미터 콘셉트를 적용하여 크로노그래프의 높은 정확성과 셀레스티얼 컴플리케이션의 매력을 결합합니다. 새로운 칼리버 391 로 구동되는 듀오미터 크로노그래프 문은 1/6 초의 짧은 시간 간격까지 측정이 가능한 초고속 크로노그래프와 29.53 일의 주기로 천천히 움직이는 달의 리듬, 그리고 낮/밤 디스플레이 간의 대비가 돋보이는 타임피스입니다.

2024 년 워치스 & 원더스에서 예거 르쿨트르는 듀오미터 크로노그래프 문을 두 가지 버전으로 선보입니다. 코퍼 컬러의 다이얼과 대비를 이루는 플래티넘 케이스 모델과 실버 다이얼의 절제된 우아함과 조화를 이루는 핑크 골드 케이스 모델이 출시됩니다. 두 모델 모두 핸드 스티치 악어 가죽 스트랩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컴플리케이션의 난제 해결

정교한 기계식 시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키기 위해 배럴이 제공하는 동력의 일부를 끌어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제어 시스템에 일정하게 전달되어야 할 동력 공급을 방해하여 정확한 시간 측정을 위해 극히 정교한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이스케이프먼트의 작동에 영향을 줍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2000년대 초반에 듀오미터 메커니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에 출시되어 예거 르쿨트르가 특허를 획득한 이 장치는 2개의 개별 배럴과 2개의 독립적인 기어 트레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케이프먼트를 구동하고(시간 측정용) 다른 하나는 컴플리케이션에 동력을 공급하며, 모두 단일 칼리버에 통합되어 하나의 이스케이프먼트에 연결됩니다. 처음으로 무브먼트의 등시성(‘작동’의 규칙성)이 그 어떤 컴플리케이션의 작동에 의해서도 손상되지 않는 것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듀오미터는 현대 워치메이킹에 혁명을 일으켰지만, 그 기본 원리는 사실 120여 년 전에 매뉴팩처에서 연구되었던 것입니다. 르쿨트르 칼리버 19/20RMSMI는 1881년에 두 개의 배럴을 갖추고 포켓 위치에 장착되었습니다. 이 칼리버는 기어 트레인이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진 못했지만, 듀오미터 콘셉트의 이론적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엔지니어와 워치메이커는 2007년 듀오미터 콘셉트를 처음으로 적용하기 위해 크로노그래프를 선택했습니다. 크로노그래프는 작동 시 매우 짧은 순간에 강한 동력이 필요하므로, 모든 컴플리케이션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확한 시간 측정 문제에 대한 가장 큰 도전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듀오미터 메커니즘은 문페이즈, 트래블 타임, 투르비용 등 다양한 컴플리케이션에 적용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칼리버

칼리버 391의 경우 예거 르쿨트르 엔지니어들은 매뉴얼 와인딩 모노 푸셔 크로노그래프와 문페이즈, 낮/밤 컴플리케이션, 두 개의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 점핑 세컨드를 결합한 통합 무브먼트를 개발하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크로노그래프 메커니즘이 활성화되면 *점핑 세컨드*가 돌기 시작하여 1초에 한 바퀴 회전하며 6번 비트(beat)합니다. 크로노그래프 타이머가 정지되면 즉시 멈춰서 1/6초까지 정확한 판독값을 제공합니다.

듀오미터 크로노그래프 문의 다이얼 측면에 자리한 두 개의 오픈워크 섹션을 통해 메커니즘의 흥미로운 모습을 엿볼 수 있으며, 이는 칼리버의 기계적인 아름다움을 떠올리게 합니다. 투명한



크리스탈 케이스백 아래 완전히 드러나는 뒷면의 무브먼트 대부분은 오픈워크로 세공되었으며, 레버와 휠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브릿지 배열이 메커니즘 속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무브먼트 전체에 시각적 통일성을 선사하는 브릿지는 선레이 제네바 스트라이프로 장식되었습니다. 부품은 하나씩 세공되어야 하며, 무브먼트 조립 후 레귤레이터 중앙에서 칼리버 가장자리까지 모든 선이 균일한 간격으로 완벽하게 정렬되어 방사형으로 뻗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탁월한 정확성이 요구되는 까다로운 기술입니다.

칼리버 391의 오픈워크 세공은 디자인을 더욱 돋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워치메이커가 매우 정교한 칼리버의 일부 부품을 보다 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적인 목적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기계 기술과 미학적 아름다움을 서로 보완이 되는 방식으로 결합하려는 예거 르쿨트르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매뉴얼 와인딩 칼리버이기 때문에 크로노그래프 레버를 가리는 와인딩 로터가 없습니다.

전통적인 파인 워치메이킹 마감이 풍부하게 사용된 모델로, 선명하게 베벨링 및 폴리싱 처리된 앵글이 브릿지 가장자리를 정돈해 주며 브러싱된 표면은 폴리싱 메탈과 대조를 이룹니다. 메인 플레이트의 페들라주는 메커니즘을 통해 빛을 다시 반사합니다. 블루 스크류는 실버 톤 메탈과 산뜻한 대비를 선사합니다.

매혹적인 디스플레이와 섬세한 디테일

다이얼은 우아한 동시에 뛰어난 가독성을 선사합니다. 독특한 3개의 카운터 레이아웃과 길고 얇은 핸즈가 장식되어 듀오미터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전통적인 섹터 다이얼의 디자인을 반영한 메인 다이얼 표면과 각 서브 다이얼의 중앙은 오팔린 마감으로 구현된 파우더리한 텍스처가 돋보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각 서브 다이얼을 둘러싸고 있는 넓은 링은 아주레(azuré, 일정한 동심원을 그리는 매우 섬세한 인그레이빙)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시각적 매력을 더하는 서브 다이얼은 메인 표면 아래로 살짝 들어가 있으며, 다이얼 가장자리는 글래스 박스 크리스탈의 윤곽을 따라 섬세한 곡선 형태를 띠입니다.



레이아웃의 대칭성을 강화한 문페이지 디스플레이는 3 시 방향에 위치한 크로노그래프 시간 및 분 서브 다이얼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블루 컬러 배경은 9 시 방향의 시간 서브 다이얼에 통합된 낮/밤 디스플레이와 시각적인 균형을 이룹니다. 경과 시간은 최대 12 시간 60 분 60 초의 1/6 초까지 정확하게 표시되며, 다이얼 주변에 표시된 타키미터 눈금을 통해 특정 구간을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기준으로 속도를 측정하거나 속도를 기준으로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점핑 세컨드*는 6 시 방향의 서브 다이얼에 표시되며 그 옆에는 메커니즘의 일부를 드러내는 2 개의 오픈워크 영역이 자리합니다. 2 개의 파워 리저브(각 배럴과 기어 트레인당 50 시간)는 서브 다이얼 양쪽의 아치 모양 브릿지에 표시됩니다. 두 배럴 모두 하나의 크라운으로 와인딩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감으면 시간 측정 기능용 동력을 제공하는 배럴이, 반시계 방향으로 감으면 컴플리케이션에 동력을 제공하는 두 번째 배럴이 와인딩 됩니다.

새로운 듀오미터 케이스: 전통에서 영감을 받은 현대적인 우아함

예거 르쿨트르는 2024 년 세 가지 새로운 듀오미터 모델 출시를 기념하여 컬렉션에 장착될 새로운 케이스를 디자인했습니다. 19 세기, 그랑 메종에서 제작한 사보네트 포켓 워치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시계의 둥근 실루엣은 보기에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촉감도 뛰어납니다. (프랑스어 *사보네트(savonette)*는 손바닥에 질 수 있는 둥근 형태의 작은 비누를 의미합니다.) 볼록한 크리스탈과 세련된 원형 베젤을 갖춘 새로운 듀오미터 케이스는 이러한 단어의 정의를 매우 잘 표현합니다. 크라운 역시 깊고 둥근 톱니 모양으로 새롭게 디자인되어 시계를 다루는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오직 폴리싱 처리된 러그 가장자리에서만 또렷하고 날렵한 라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직경 42.5mm 의 편안한 케이스는 34 개의 개별 부품으로 구성된 정교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러그는 통합형이 아닌 스크류로 고정되어 다양한 마감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폴리싱과 브러싱, 마이크로 블라스팅 마감이 혼합된 표면은 손목 움직임에 따라 매혹적인 빛의 유희를 만들어 냅니다.

완전히 새로운 칼리버와 다이얼, 케이스를 갖춘 듀오미터 크로노그래프 문은 예거 르쿨트르의 끊임없는 창조 정신을 대담하게 드러냅니다. 아름다움과 기술적인 정교함을 결합하고 정확성을



중심으로 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파인 워치메이킹 전통에 깊은 존경을 표하는 메종의 철학을 구현한 모델입니다.

상세 정보

듀오미터 크로노그래프 문

케이스: 핑크 골드 750/1000(18 캐럿) 또는 950 플래티넘

크기: 직경 42.5mm x 두께 14.2mm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391

기능: 시, 분, 초; 12 시간 카운터, 60 분 카운터, 1/6 초 카운터, 센트럴 크로노그래프 세컨즈가 장착된 크로노그래프; 문페이스, 낮/밤, 2 개의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

파워 리저브: 각 배럴당 50 시간

앞면 다이얼: 실버 오팔린(핑크 골드 케이스), 코퍼 컬러 오팔린(플래티넘 케이스)

방수: 5 바(bar)

스트랩: 악어 가죽

제품 번호: 핑크 골드: Q622252J / 플래티넘: Q622656J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 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왔으며 430 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워치메이커는 190 년 동안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80 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jaeger-lecoultre.com